

교회소식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성찬에 참여한 거룩함이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기 소망합니다
2. 교회 창립 21주년 감사 예배와 임직식(집사, 권사 안수)이 7월 19일 주일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안수 받는 임직자들을 축하하는 주일이 되기 바랍니다.
3. 오늘 예배 후 6월 정기 당회가 사무실에서 있습니다(3시 40분).
4. 다음 주일은 각 선교회 월례회가 있는 주일입니다. 상반기 활동 계획을 점검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임원들은 준비하기 바랍니다.
5. 교회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드리는 1부 예배가 다음 주일(7월 5일)부터 재개됩니다. 교사들은 반드시 참여 바랍니다.
6.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본당에서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09 369 5077 / 021 968 388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7월 교회사역일지

7월 19일 (주일)
창립주일
임직식
7월 26일 (주일)
권사 기도회
7월 29일 (수)
비누아투, 베트남
공동체 주관 예배

7월 기도 순서

7월 5일 (주일)
박덕철 장로
7월 8일 (수)
이혜경 집사
7월 12일 (주일)
박병민 장로
7월 15일 (수)
임태원 집사

7월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김창조, 김자경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A, 허영순,
박소진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 / 07 / 18

22권 26호

2020.06.28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14

예 배 시 간 안 내

주일 1부예배 주일 11:20 am
주일 2부예배 주일 1:00 pm
청년예배 주일 3:15 pm
수요예배 수 7:30 pm
금요기도 금 7:00 pm
유아부 주일 1:00 pm
아동부 주일 1:00 pm
청소년부 주일 1:00 pm

섬 기 는 사 람 들

담 임 목 사 이 태 한
부 목 사 이 성 철
부 목 사 이 성 훈

청 년 예 배

금 주 기 도
홍진솔 자매
다음 주 일
이예찬 형제

주 일 예 배

1부 오전 11시 20분
2부 오후 1시
인도: 이태한 목사

찬 양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신명기 26:10-11	인도자
✧찬 송	8장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 송	279장	다함께
대 표 기 도		김철재 집사
성 경 봉 독	창세기 8:20-9:7	인도자
찬양대찬양	생명의 떡	나무십자가찬양대
설 교	다시복주시는 하나님	이태한 목사
성 찬 예 식		집례자
유아세례식		집례자
찬 송	229장	다함께
헌 금 기 도		인도자
교 회 소 식		인도자
✧응 답 송	310장 (1,4절)	다같이
✧축 도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수 요 예 배

오후 7시 30분

기 도	이옥화 집사
성 경 봉 독	여호수아 1:5-9
설 교	강하고 담대하라 이태한 목사
찬 송	347장
주 기 도	다같이

선교란

이번 주는 중앙 아시아 k국 강나하르 선교사 소식입니다.

기도로 함께 해주시는 성도들에게

벌써 햇살에 피부가 그을리고 있고 밖에서 걸으면 땀이 차오릅니다. 모두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한국은 서울과 수도권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그 숫자가 줄어들지 않아 점점 조심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모두가 안전하게 이 시기를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황: 저는 무사히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감사하게도 협력 교회가 선교관에 머물게 해 주셔서 2주 동안 숙소 걱정 없이 일정을 잘 보냈습니다. 청년부에서, 성경 공부 모임에서 함께 했던 형제 자매들을 20여 년 만에 만났고, 협력 교회에서 선교 보고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동료 선교사들과 만나 교제를 나누고, 협력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잘 해주셨고, 교역자님들과 좋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K국 소식: K국(선교사 사역지)은 6월 초 현재 1만 3천여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들어 항공기들은 제한적으로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K국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자국민과 영주권자, 그 가족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K국이 여러 제한 조치를 점점 완화하고 있어서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자주 확인하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AT 시의 현지인 교회는 그동안 인터넷으로 주일 모임을 하다가 지난주 처음으로 N 목사님 댁에서 교회 모임을 시작했다고 소식이 왔습니다. 영어 학원은 코로나로 인터넷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학생들이 1/3로 줄어들어 타격이 많습니다.

계획: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B8 비자 발급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서류 제출 후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K국에 들어갈 일정이 정해지면 바로 B8 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미리 준비할 서류와 K국에 갖고 들어갈 서류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시간을 좀 더 가지고 만나야 할 분들을 만나고, 교회에 선교 보고를 위주로 남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덥고 습해지는데 건강하십시오.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 여기저기 몇 지역을 방문하고 이동하는데 코로나 조심하면서 건강관리를 잘 하도록
- B8 비자와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시간에, 문제없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의 교회가 되도록.
2. 유혹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예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3. 코로나 19로 고통 중인 선교사들과 열방에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도록.

나눔란

2020년 6월 21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방주에서 나오라> 창세기 8:13-22

900년 이상을 살아도 단 한 줄로 요약되는 인생이 있으나 노아의 경우 그가 겪은 377 일간의 홍수 사건만으로도 몇 장이 채워집니다. 노아는 세상과 다르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1)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무려 1년이나 방주안에 갇혀있었지만 노아는 지면에서 물이 걷힌 것을 보고도(8:13) 방주안에서 기다렸습니다. 방주를 만들 때 도(6:14) 방주로 들어갈 때도(7:1) 방주에서 나오는 것도 자기감정이 아닌 말씀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지 보름 만에 안전을 위협당해 고향인 다소로 보내져(행 9:30) 그곳에 13년이나 머물러야 했습니다(갈 2:1) 비참하고 답답했을 터인데도 긴 시간 그냥 머물러있었던 것은 바울에게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 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행 22:17-18). 우리도 각자 인생의 '다소'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롬 8:32) 하신 말씀을 붙잡고 인생의 어떤 다소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며 더 높기에(사 55:37-39)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사항이 아닌 인생의 중심에 세우고 말씀을 등과 빛으로 삼아야만(시 119:105) 생명길로 갈 수 있습니다.

2)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안전한 방주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떠나 세상에 살며 이 세대를 본 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롬 12:2) 방주 밖으로 나와야만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됩니다.

3) 노아는 제일 먼저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8:20):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와 가장 먼저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예배인 번제를 드렸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것임을 깨달은 노아는 예배로 자기 삶의 기초를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복을 주십니다(8:21). 이 복은 (a)예배자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면 내 인생은 열리게 되어있습니다. (b)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복입니다. 또한 (c)용서의 복을 받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듣고 사하고 고쳐주십니다(대하 7:14).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인생도 그 해결책은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요 4:23).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번제로 드러진 정결한 짐승은 부정한 우리 대신 드러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음은 그럴만한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신(자칼)바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번제물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기 위해 보내주신 가장 정결한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가장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 받는 갈보리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간 성경 묵상: 시편 90 - 117편

금주의 암송 말씀 - 창세기 9:1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